

음악연구소 창립기념 축하

이사장 김 연 준 박사

시시각각 발전하는 현대문명은 국경을 초월 온 세계를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계 문명 분야에서 뿐만이 아니요, 일상 생활에서 예술 문화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광범위 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부속품들이 미국에서 제작되는 TV 에 부속품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일본에서 제작된 자동차가 미국인들간에 애용되고, 미국의 햄버거가 블란서에서 인기인가 하면, 한국의 음식점이 뉴욕에서 절찬을 받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술문화 즉 음악에서도 독일의 바그너 작품이 이스라엘에서 연주되는가 하면, 유태계의 쇤베르크의 곡이 독일인들 간에 사랑받고, 소련의 쇼스타코비치의 심포니가 미국에서 연주되는가 하면, 미국의 재즈와 디스코가 소련의 젊은이들 간에 열렬한 환영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범람속에서 첫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고유한 것들을 지킬 것이며, 둘째, 외국의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어떤 전문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심각히 숙고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문화는 물품이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마치 골동품이라도 위하듯 유리장안에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는 곧 우리 자신들의 정신이요 사고인 것입니다. 고도의 세계문명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안다는 것으로는 어떤 자신의 고유의 문화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알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남의 관습을 알고, 문화를 배우고, 특히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문화를 정확히 배우고 파악함으로써 우리 자신들 문화의 그들과 다른 점도 더욱 분명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단

점도 비교 분석되어 보다 훌륭한 우리 고유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외국 것이면 무엇이든 좋다는 무분별 역시 문화를 해치는 커다란 요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문화라도 모든 요소들이 무조건 전부 건전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이 가치있는 일이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상황과 조건하에서 어떠한 순서로서 받아들임이 가장 이상적인가 하는, 이상의 모든 것들은 전문 분야별로 전문적인 깊은 연구가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모든 문제점들 중 음악에 관한 것들은 전문적인 음악연구소에서 음악인들과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 평가 그리고 발전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음악인들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순수 예술음악이 神을 찬양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창작자나 연주자가 얼마큼 높고, 순수한 정신으로 음악을 대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겠습니다. 실력없는 건축가가 건물을 세웠을 경우 그 건물은 곧 허물어질 것이요, 자격없는 의사가 수술을 담당했을 경우 그 환자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음악은 누구를 죽이지도 그리고 상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나쁜 음악이 누구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면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이야기일 뿐이요, 내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이야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건전하고, 훌륭한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얼마큼 순결해지고, 고귀해지며, 좋지 않은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얼마큼 나약해지고 저열해지는가는 고대로부터의 전문이론가나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매일 경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음악인은 그 누구보다도 높고 순수한 정신으로 아름다움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웅졸함과 절투심과 시기심을 버리고 아름다움을 가르침을 삶의 철학으로 국가사회에 선도적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연구소에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은 각자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이 연구소가 국가사회는 물론 나아가 인류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음악연구소 설립을 축하하는 바입니다.